

# 신년사

존경하는 조합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래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경자년(庚子年)이 지나고 2021년 “흰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조합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소각업체는 자원순환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산업폐기물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폐기물과 전국에 산재한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며 국가적 재난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새해에는 국가 기반시설로의 역할 요구에 답하기 위해 공익기능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주민 친화 시설 전환 기틀 마련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처리시설 부족 해소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흰소는 강인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간 소각업체도 흰소처럼 끈기를 가지고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공익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업체의 신뢰와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조합원사 사업장과 가정에 행복과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元杻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박무웅 배상